

#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역사 ‘고려해운’

## 금년 4월 창립 50주년을 맞아 재도약에 박차

### 모든 서비스 고객만족 및 고객중심으로 전개

#### 고려해운의 탄생

금년 4월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고려해운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 한국해운의 역사이자 얼굴이다. 고려해운 설립 당시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그야말로 황무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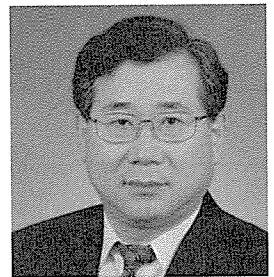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 처음으로 국적선박 일제등록을 실시한 결과, 보유선복량은 내·외항 구분없이 모두 313척에 1만 7,170G/T에 불과했으며, 1947년 과도정부 발족 당시의 보유선복량은 219척, 4만6,575G/T로 집계되는 등 해운산업은 그야말로 명맥만 유지될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특히, 고려해운이 설립된 1954년 4월 당시 해운기업이라고는 1950년 1월 설립된 국영기업인 대한해운공사를 비롯하여 10여개사가 전부였고, 이들 선사의 보유선복량도 8만G/T 수준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들 선사의 전체보유선복량의 80%가 대한해운공사의 선박으로 일반 해운기업들의 보유선복량은 회사별로 평균 2,000G/T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고려해운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요람기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과 한발 앞선 고객서비스로 금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반세기 동안 오로지 해운입국을 향해 한눈 팔지 않고 달려 온 고려해운이기에 항상 고려해운 하면 처음 또

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뒤따른다.

우리나라에서 회사 설립과 함께 외항해운으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호변경없이 반세기를 맞은 외항해운기업은 고려해운이 처음이요, 국내 최초로 한국과 일본간 풀컨테이너 서비스를 개시한 것도 고려해운이기 때문이다.



고려해운 전문준 사장

#### 고려해운의 발전과정

지난 1954년 883톤(G/T)급 일반화물선 1척으로 시작한 고려해운은 여타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난 반세기동안 부침이 있었으나, 오늘날 사선 16척, 용선 11척 등 총 27척의 컨테이너선과 약 6만9,600 TEU의 컨테이너 장비를 보유한 견실한 컨테이너선사로 성장했다. 임직원수는 해상직원을 포함하여 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고려해운은 지난 1973년 6월 한국-일본간 국내 최초로 풀컨테이너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1978년 11월에는 영역을 미주지역으로 확대, 극동-북미 항로의 풀컨테이너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정기선항로의 선두주자로서 한국해운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



여했다.

이어 1990년 12월에는 한국-일본간 카훼리운송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듬해인 1991년 9월에는 일본 서안 컨테이너항로를, 1992년 6월에는 한국-대만 간 풀컨테이너 서비스를 개설했다.

고려해운은 또 1992년 8월 울산지역 화주들을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울산항에 컨테이너 정기선을 배선하여 이 지역 화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11월에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을 잇는 정기항로를 개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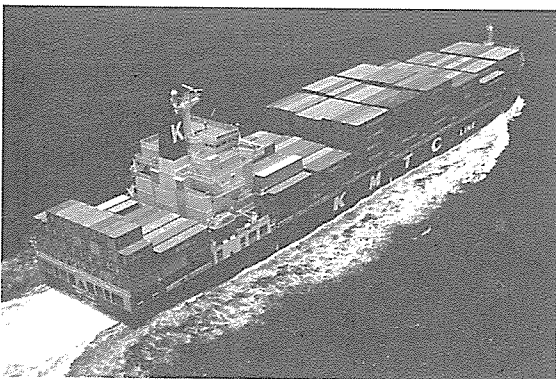
이와함께 1994년 2월에는 한국-중국간 풀컨테이너 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6월에는 한국-베트남 FEEDER 서비스를, 1995년에는 극동-방글라데시 FEEDER 서비스와 한국-인도네시아간 컨테이너 서비스를 각각 개시했다.

고려해운의 서비스 확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96년과 1997년에는 한국-싱가폴·말레이시아간 컨테이너항로와 한국-필리핀 및 한국-인도·방글라데시간 컨테이너항로를 개설했으며, 1998년에는 한국-태국, 한국-토요하시간 컨테이너 서비스를, 1999년에는 캄보디아 FEEDER 서비스와 일본 큐슈(쿠마모토, 야쓰시로, 나가사키) 컨테이너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규항로를 개척했다.

2000년에 들어서도 한국-베트남 컨테이너 서비스를 비롯하여 한국-수라바야간 컨테이너 정기항로와 한국-스리랑카간 FEEDER 서비스를 개시했

## 고려해운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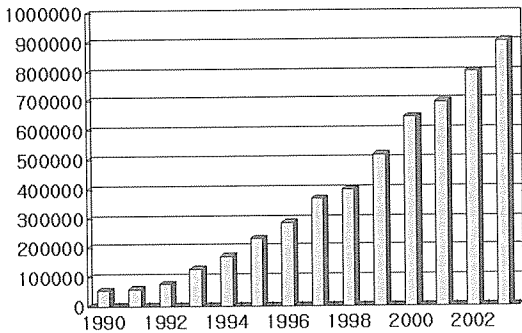
- 1954. 4 회사 창립
- 1973. 6 한국/일본 국내 최초 풀컨테이너 서비스 개시
- 1978. 11 극동/북미 풀컨테이너 서비스 개시
- 1990. 12 한국/일본 카훼리운송사업 개시
- 1991. 9 일본서안 컨테이너항로 개설
- 1991. 11 부산항 국제여객부두 민간자본 참여
- 1992. 6 한국/대만 풀컨테이너 서비스 개시
- 1992. 8 국내 최초로 울산항에 컨테이너 정기선 배선
- 1992. 11 한국/대만/홍콩항로 개설
- 1994. 2 한국/중국 풀컨테이너 서비스 개시
- 1994. 3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 수상
- 1994. 6 한국/베트남 FEEDER 서비스 개시
- 1995. 4 극동/방글라데시 FEEDER 서비스 개시
- 1995. 8 한국/인도네시아 컨테이너 서비스 개시
- 1996. 5 한국/싱가폴·말레이시아 컨테이너 서비스 개시
- 1997. 1 한국/필리핀 컨테이너 서비스 개시
- 1997. 6 한국/인도·방글라데시 컨테이너 서비스 개시
- 1998. 5 ISO 9002/ISM CODE 인증 획득
- 1998. 9 한국/태국 컨테이너 서비스 개시
- 1998. 12 '98(제6회) 한국 물류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 1998. 12 한국/토요하시 컨테이너서비스 개시
- 1999. 1 한국/닝보 컨테이너서비스 개시
- 1999. 5 한국/미즈시마 컨테이너서비스 개시
- 1999. 6 정보 시스템 부문 Y2K 인증 획득
- 1999. 6 캄보디아 FEEDER 서비스 개시
- 1999. 6 일본 큐슈(쿠마모토, 야쓰시로, 나가사키) 서비스 개시
- 2000. 4 한국/베트남 컨테이너서비스 개시
- 2000. 5 대표이사 철탑 산업훈장 수상
- 2000. 6 한국/수라바야 컨테이너서비스 개시
- 2000. 8 한국/스리랑카 FEEDER 서비스 개시
- 2001. 3 무역협회 선정 근해 선사 중 최우수서비스 선사
- 2001. 3 한국/시아멘 컨테이너 서비스 개시
- 2001. 7 한국/와카야마, 요카이치, 시미즈 서비스 개시
- 2001. 8 일본서안/중국 상해를 연계하는 시계추서비스 개시
- 2001. 10 일본서안/중국 천진을 연계하는 시계추서비스 개시
- 2002. 6 일본서안/중국 대련, 청도 연계 시계추서비스 개시
- 2003. 7 한국/마쯔야마, 이마바리 서비스 개시
- 2004. 2 인천/상해항로 서비스 개시



으며, 2001년-2004년 4월 중에는 한국-시아멘 컨테이너 서비스와 일본 서안-중국 상해를 연계하는 시계추서비스, 일본 서안-중국 천진을 연계하는 시계추서비스, 일본 서안-중국 대련, 청도를 연계하는 시계추서비스, 인천-상해항로 서비스 등을 개설하는 등 틈새시장과 새로운 시장을 씬없이 개척해 나가고 있다.

### 최근 9년간 컨테이너 수송량

(단위: TEU)



그 결과, 고려해운은 2003년에 90만TEU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였으며, 매출액은 4,340억원에 영업이익이 70억원으로 19년 연속 흑자경영을 시현하는 등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했다.

### 고려해운의 서비스 현황

고려해운은 현재 18개국 78개항만에 컨테이너선을 취항시키고 있다.

특히, 한-일항로에서는 일본의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총 34개 주요 항만에 컨테이너선을 취항시켜 정요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중국간 항로에서도 상해, 대련, 천진, 청도, 닝보 등 중국의 주요항만에 주 1항차의 정요일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동남아시아항로에서는 대만을 비롯하여 홍콩,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주요항만에 정요일 서

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서남아시아항로에 컨테이너선을 투입,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에 기항하고 있다.

고려해운은 국제복합운송업과 항공화물운송업, 카훼리운송업에도 진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고려해운은 지난 2월27일 한진중공업에 발주한 1860TEU급 컨테이너선박 1차선인 'KMTC SHANGHAI'호를 명명식과 함께 인수해 말레이시아항로에 투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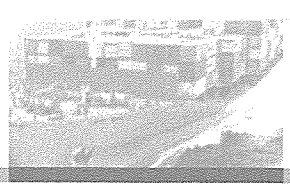
'KMTC SHANGHAI'호는 길이 187.3m, 너비 27.6m, 항해 속력 21.5Knots의 1860TEU급 최신형 풀컨테이너선으로 27일 인수 당일 중국 상해를 경유하는 말레이시아항로에 투입됐다.

고려해운이 운영하는 말레이시아항로는 울산-부산-상하이-홍콩-포트켈랑-싱가폴-파시르구당-홍콩-상하이-울산에 기항하고 있으며, 이번 최신형의 신조선박 투입으로 보다 나은 대고객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전문준 고려해운 사장은 이날 명명식 기념사에서 "최신기술로 건조된 KMTC SHANGHAI호를 주력항로인 동남아항로에 투입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차원 높은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최고 성능의 선박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시아역내 최강의 선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려해운은 이번 'KMTC SHANGHAI' 호에 이어 동급 신조 선박 2차선인 'KMTC PORT KELANG' 호를 올해 5월에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할 예정이다

한편 고려해운은 국내에 부산, 울산, 대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해외에는 도쿄를 비롯하여 중국



한진 중공업에서 건조한 1860TEU급 풀컨테이너선 'KMTC SHANGHAI' 호

의 대련, 천진, 청도, 상해, 닝보, 사이먼, 삼천과 홍콩, 호치민, 방콕,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자카르타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 고려해운의 강점

"신뢰받는 기업, 최상의 서비스 제공, 안전운항, 내실경영"을 경영모토로 삼고 있는 고려해운의 최대 강점은 기획력과 경영감각이 뛰어난 CEO와 우수한 직원들, 그리고 가족애로 뭉쳐진 해상직원들 모두간의 화합이다. 또한 CEO와 임직원간의 자유로운 토론문화는 오늘날 고려해운의 성장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50년간의 해운활동을 통해 구축된 서비스의 노하우와 최우선적으로 고객을 생각하는 고객중심의 영업방침은 고려해운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더구나 고려해운은 외항해운 이외에도 해운대리점과 항만하역, Terminal, Car-Ferry, Sea & Air Forwarding부문에 진출하여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

하는 한편, 지난 1973년 국내최초로 풀컨테이너선을 취항시킨데 이어 CY, CFS, Trucking 사업과 극동지역에서의 효율적인 Feeder Network 구축 등 정기선시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은 회사 최고의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각종 서비스의 수준은 최상이다. 국내외에 On-Dock Terminal

및 Berth Window 확보를 통한 운항스케줄의 정확성과 각 지역별 Local Port, Niche Market 지속적인 개발, 항로별 최적 선속 및 선형 유지를 위한 신조선 위주의 선대운항, 연중무휴의 대고객 서비스시스템 구축 등은 고려해운만의 자랑거리이다.

이와함께 고려해운은 고객이 보다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화물을 맡길 수 있도록 통합 전산서비스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선적관련 제반업무 및 절차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안전 품질경영 System(ISO & ISM Code)의 지속적인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적서류에 대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든 서비스를 고객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밀한 기획력을 통해 꾸준히 신항로를 개척하는 고려해운의 진취적인 시장접근전략은 여타 선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고려해운 특유의 기업문화로서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